

四國산촌의 隱居屋의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일본 德島縣 東祖谷山村 落合地區를 중심으로-

Survey Research Regarding the characteristic of the Retirement House in Mountain Village of Shikoku - Focusing on Ochiai area in Higashiyyayama-son in Tokushima Prefecture of Japan

박 찬*
Park Chan

Abstract

This research is the survey result of the retirement house in Ochiai area that is a famous as mountain village of Japan. This area is being formed in a steep slope and be arranged the building long a side along the contour line. As for the plan type of a main house 'the middle bedroom three-madori(bay) type' and 'the parallel two-madori(bay) type' occupy many. As for in the retirement custom of Ochiai area the independence family style (separation/ separate meal/separate household economy) is a principle and a parents family builds the retirement house and move out. The plan of the retirement house is two-room type of 'Omote(public room) and Uchi(kitchen and living room)' and agree with the plane prototype "plan constitution of a necessary minimum" of farmhouse of this area. The reconstruction that the retirement house is remodeled handily with a main home, especially intend the convenience of the life such as a kitchen and toilet has been done. The retirement custom has been succeeded thoroughly until recent years in this area. However, this traditional custom is seeing the end, without there is the successor of a main house with depopulation.

Keywords : Mountain village of Shikoku, retirement custom, retirement house, the parallel two-madori(bay) type, Omote and Uchi

주 요 어 : 四國산촌, 隱居제도, 隱居屋, 並列2間取り(병렬2구획형), 表와 內

1.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일본의 四國(시코쿠), 산속 깊숙한 마을에서는 오래 동안 隱居(인교)제도라고 하는 독특한 주거관행을 유지해 왔다. 隱居제도라 함은 장남이 결혼하면, 가장은 본체의 옆에 별채-隱居屋(인교야)를 세워 분가해 나가는 은퇴관행을 말한다. 그러나 隱居제도는 최근 지역의 과소화로 인해서, 곧 부모자식의 2세대 거주가 성립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현재 명맥이 끊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이와같은 일본의 독특한 주거관행에 대해서, 근년까지 隱居관행이 비교적 철저하게 이행되어 왔던 지방 - 四國산지, 德島(토쿠시마)縣 祖谷(이야)지방 落合(오치아이)地區-를 예로 들어, 隱居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물리적 장치로서의 隱居屋에 대해서 그 특징을 밝혀 보고자 한다.

주요한 선행연구로는 일찍이 竹田 昶가 광범위한 지역

조사를 통해서 지역별 隱居제도의 특성을 밝힌 바 있고(참고문헌 7, 8), 隱居屋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남서일본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연구, 곧 2세대주택에 있어서 隱居관행의 실태와 변화과정을 밝힌 연구가 있다(참고문헌 13, 14, 15). 그리고 본연구와 같은 지역의 민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三浦 要一의 연구가 있는데, 이는 본체를 중심으로 한 연구이다(隱居屋은 대상에서 제외, 참고문헌 16).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나, 대상지역이 다르고 제도보다는 주택에, 그리고 隱居屋에 주안점을 둔 점에서 차별된다.

한편, 일본의 주택/주거문화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그간 적지 않은 연구-비교적인 수법에 의해서나 실태조사의 형식을 막론하고-가 있어 왔다. 일반적으로 연구의 시각은 두 가지 시각, 곧 총론적이며 개괄적인 시각과 개별적이면서 보다 미시적인 시각으로 나눌 수 있다. 본고가 취하고 있는 시각, 곧 개별적이며 미시적인 시각은, 일본의 주거문화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특히 유효하다. 그것은 전통주택에 있어서(일본의) 지역성(특성)의 존재가

*정회원(주저자), 전남대학교(여수) 건축학과 조교수

이미 폭넓게 검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본연구를 통하여 이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이 이루어질길 기대한다. 이문화에 대한 이해는 아주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행태이다. 깊은 이해는 단순히 타자에 대한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본고를 통하여 얻게 되는 이문화권의 주거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우리의 주거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四國의 徳島縣 東祖谷山村 落合地區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그 중에서 전통민가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마을, 구체적으로 落合地區의 민가 총 45호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민가 전체목록은 지면관계상, 그리고 본고의 목적이 민가 전반이 아니라 특정한 부분(隱居屋)에 있으므로 생략하고 隱居屋에 관한 부분만 게재한다(표 2 참조).

조사방법은, 남아 있는 隱居屋에 대한 평면조사를 기본으로, 현재 隱居屋에 살고 있거나 살아 본 경험을 가진 노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행하였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측을 행하였고, 사진촬영을 병행하였다. 조사내용은 대상지역의 전체적인 마을 특성, 주거일반(본채)과 隱居屋의 평면특성과 공간사용의 실재 등이며, 고찰과 분석에 있어서는 연구 성격 상 특별한 방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조사내용전체를 隱居屋의 특성이라는 측면을 위주로 재해석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현지조사는 수차례에 나누어 이루어졌는데, 가장 최근의 조사로는 2005년 10월에 행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당조사지의 취락에 관한 기초 조사가 실적이 있는 김정균(鳴門教育大學 生活健康系(家政) 助教授)의 다대한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는 2001/2002년(平成13/14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文化廳 傳統的建造物群 保存對策 調査」에 참여하여 이 마을의 보존을 위한 기초조사를 행한바 있다. 조사팀은 奈良女子大學, 高知女子大學, 鳴門教育大學, 그리고 阿波のまちなみ研究會의 합동으로 구성되었고, 그중에서 「고령자의 마을환경」 조사를 담당하였다. 당시에는 여러 팀의 합동조사였고 주제가 정해져 있었던 만큼, 특정분야- 곧 본고의 주제인 은거옥, 은거제도 등을 포함하여-에 관해서는 조사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당시의 조사 결과는 조사보고서의 형태로, 그리고 학술논문의 형태로 공간된 바 있다(참고문헌).

II. 본 론

1. 落合地區

徳島縣 祖谷지방은, 高知(코-치)縣과 경계에 위치한 四國의 산지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동쪽으로 劍山(쓰루기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표고 1955 m)을 두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산간지방 중에 하나이다¹⁾. 예로부터



그림 1. 落合地區전경



그림 2. 민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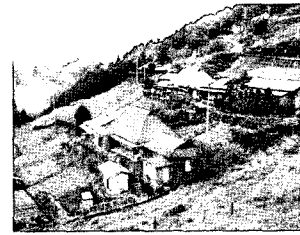


그림 3. 민가2



그림 4. 민가3

산이 험해서 사람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지만, 뛰어난 풍경으로, 일본의 3대 비경의 하나로 손꼽혀 왔다. 이 지방의 동쪽에 위치하는 東祖谷山(히가시이야야마)村은 급경사로 이루어진 가혹한 지형조건 속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落合地區²⁾는, 평탄한 토지가 거의 없으며, 각 민가는 산록의 급한 경사지를 약간 절토하는 정도로 부지를 마련하여, 간신히 붙어있는 형태로 점재한다. 마을 구성, 민가의 부지형상, 배치, 구성 등에 있어서, 다른 지방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형식을 확립하고 있다. 또 급격한 경사면을 기반으로 한 마을 풍경도 이곳 徳島縣이외에는 찾아 볼 수 없다.

한편 이 마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붕을 띠잇기(茅葺き)로 한 전통민가(말하자면 초가)가 다른 마을 보다 비교적 많이 남아 있었다(현재는 대부분이 함석잇기로 덧씌워졌다). 일찍부터 이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학계, 민간, 정부 모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최근 2005년 12월 1일부로 「民家保存地區」로 최종 확정되었다³⁾.

1) 일본의 대표적인 산촌으로 東北(토-호쿠)지방과, 關東(칸토-)지방에 가까운 長野(나카노)縣-일본알프스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과, 四國의 劍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들 수 있다. 四國의 산촌은 산이 깊고 험준한 정도에서 여타에 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사람들이 들어가 살기 시작하여 그간 적층되어진 문화적 총량이 적지 않다.

2) 「地區(치쿠)」는 (말단)행정단위로, 때때로 「集落(슈-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모두 우리나라의 「마을」로 번역할 수 있다. 落合地區는 구전에 의하면 13세기경에 형성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平家落人傳説」: 文治元年(1185년) 讃岐屋島の 전쟁에서 패한 平家の 일문 중에서 일부가 난을 피하고자 이곳까지 흘러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이 지방의 구전. 그 자손들이 살고 있는 민가가 현재 이 지방에 존재하고 있으며(「阿佐集落」의 「平家屋敷」), 동가에는 전설을 뒷받침하는 유물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3) 민가(民家)라는 용어는 문자적으로는 궁궐, 관아 등이 아닌 일반 백성의 집 곧 여염집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본의 학계에서는 관용적으로 상류층, 지배층의 주택에 대해서 서민주택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2. 마을과 민가

1) 마을

落合地區(集落)은 산간지역에서도 급경사라고하는 가혹한 지형조건을 가지면서도, 祖谷지방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마을에 속한다. 平成13년(2001년) 기준으로 총104호에 주민 249명이 거주하고 있다(조사대상마을인 落合西地區와 落合南地區를 합하여). 마을의 가장 아래에 있는 민가와 가장 위에 있는 민가와와의 고도차는 300m나 되며, 평균경사도 38.8도에 달한다. 민가들은 산허리 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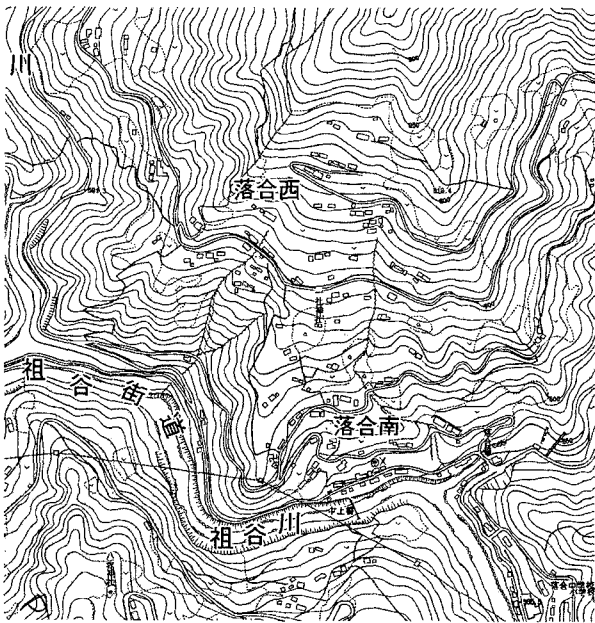


그림 5. 落合地區의 지형(S=1/13000)



그림 6. 落合地區의 민가분포

경사지에 들어서 있으므로 건너편에서 바라보면 경사지에 간신히 붙어 있는 듯이 보인다. 아마도 최초의 정주자들은 계곡의 홍수를 피할 수 있고 일사의 조건에 유리한 산록을정주지로 택한 것일 것이다(이 지방의 연간 강수량은 3000 mm을 넘는다).

비탈진 곳이긴 하지만, 마을 중앙에 신사가 있고 숲으로 둘러 싸여 있는 것은, 평지의 여느 마을의 구성과 다름이 없다. 이곳의 신사에서는 음력 6월 8일 여름축제(제사), 음력 8월 5일에 가을축제(제사)가 거행된다. 신사가 마을행사의 중심인 점도 일본의 여느 마을과 다름이 없는 점이다. 德島縣은 불당이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마을에도 세 개가 있는데 藥師堂, 觀音堂, 地藏堂이 그것이다. 불당은 이전에는 많은 행사가 거행되곤 했지만 현재에는 개인적으로 참배하는 장소로 이용될 뿐이다.

2) 마을길

마을 전체는 민가 간을 종횡으로 연결하는 폭이 좁고 구불구불한 길-거의 산길수준-로 연결되어 있다(현지에서는 「赤筋道(아카스지미치)」라고 부른다). 다른 집을 가기 위해서 옆집의 앞마당을 지나가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도보용 이 길은 현재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자동차도로는 1963년도 경에 다른 마을과의 교통을 위해서 그리고 산림도로로서 건설되었다. 그 후 자동차의 보급에 따라서 조금씩 연장되어 현재는 거의 모든 부지를 연결하고 있다. 차량한대 정도가 다닐 수 있는 작은 폭의 도로이지만 마을 아래에서 상부까지의 총연장은 상당한 길이를 가진다.

3) 민가

부지는 절토와 석축을 병행하여 조성하였다. 급경사지인 관계로 전후 폭에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실측치의 평균은 부지의 전후폭은 13 m, 본채(主屋)의 뒤편의 여유는 1 m, 앞마당은 3.6 m 정도). 따라서 부지는 좌우방향으로 필요면적을 확보할 수밖에 없으므로 거의 모든 민가의 부지는 등고선에 따라서 좌우로 세장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건물은 산을 등지고 있고 또 등고선에 따라서 들어서기 때문에 반드시 남향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부지에의 진입도 부지의 정면에서가 아니라 부지의 측면이나 배면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근년에는 차도를 완비한 후로는 차도에서의 진입이 주가 되고 있다.

본채이외에 부속채로는 전술한 바 있는 隱居屋와 주로 창고용도로 사용되는 곳간채(納屋, 物置)를 들 수 있다. 隱居屋은, 동일 부지 내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부지에 건립한 경우도 있다. 이들의 배치형식은 본채를 중심으로 양쪽에 隱居屋과 곳간채(納屋)가 오는 「3棟並列形式」(12사례)과 둘 중에서 어느 하나만 오는 「2棟並列形式」(14사례)로 대별된다. 나머지 19사례는 「1동형」 내지는 같은 부지이지만 떨어져 건립된 「격리형」 등이다. 「3棟並列形式」에서는 정면에서 바라보아 본채의 왼쪽에 박공면을 전면으로 한 곳간채, 오른쪽에 처마면을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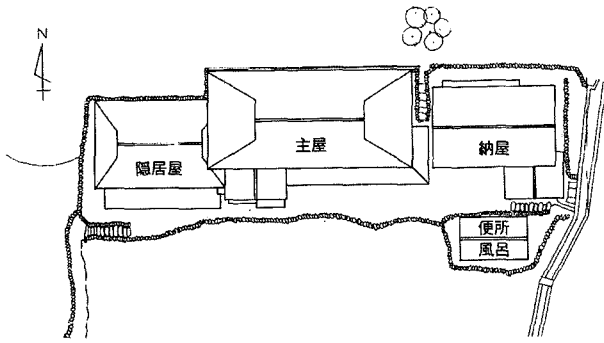


그림 7. 배치 예 (新居つや子家)



그림 8. 新居つや子家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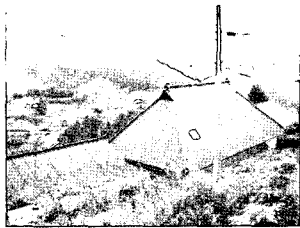


그림 9. 新居つや子家2

으로 한 隠居屋이 배치된 경우가 많다. 「2棟並列形式」의 경우는 규칙성은 찾아 볼 수 없고 단지 부속채가 박공면을 전면으로 하여 배치된 것이 많은 편이다. 본채는 어느 경우 건 처마면을 전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외에 목욕장을 겸한 화장실은 본채와 격리하여 隠居屋 또는 곳간채의 앞쪽 한단 낮은 위치에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외의 부속채로는 비교적 최근(1960년대 이후)에 지어진 것으로 양잠실, 연초 건조실 등이 있다. 그리고 부지 내에는 가족의 묘인 家墓와 家神을 안치한 작은 신사인 小祠(쇼시)가 위치한다. 가묘는 부지 한 편에 비석이 균을 이루고 있어서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명치 시대 장제법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뀐 이후로는 家墓를 취하지 않고 모두 공동묘지를 이용하고 있다.

민가의 건립연대는 江戸(에도)시대 중기(1700년)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 까지 폭넓게 분포한다. 건립연도가 확실한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南敏治가로서 安永9년(1780년)이다(상량문).

4) 식재

이 마을에는 오래된 방풍림과 용재림이 존재하지만, 그 늘지는 것을 피하고자, 그리고 작물의 생육이 방해받는 것을 피하고자, 부지나 밭 주위에 식재를 하지 않는다(일본의 주택은 많은 경우 부지 주위에 건물이 가려질 정도로 식재를 한다). 따라서 마을경관은 나무에 방해되지 않고 열려진 채로 경사진 대지위에 펼쳐지며, 계곡 저편은 물론 아래쪽에서도 마을이 한눈에 들어온다.

3. 隠居제도

일본에서의 隠居⁴⁾란 곧 가정 내에서의 은퇴를 말한다. 곧 은거제도란, 가장이 생전에 가장권(호주권, 가독(家督)

권)을 차세대의 상속인-일반적으로 장남-에게 양도하는 제 관행을 말한다. 은거에 의해서 대외적인 책임, 곧 촌락, 친족등과의 교제는 모두 신가장에게 위임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대내적인 권한, 곧 가족의 통제, 재산의 관리, 제사의 집행 등에서는 한번에 모두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은거는, 은거자가 상속인과 완전히 別居/別食/別財의 생활을 하는 형태로부터 同居/同食/同財까지 단계별로 여러 형태가 있다. 대별하면 1) 同居隠居라고 하여 본채 내에서 칸막이만 한 채, 또는 오모테(응접용실, 상세 후술)를 은거로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2) 別居隠居라고 하여 隠居屋을 별도로 건립하는 방식이 있다. 여기에는 單獨別居隠居(隠居屋에 양친 부부만 별거)와 家族別居隠居(隠居屋에 차남이하 자식들도 동반하여 별거)의 두 가지 유형이 있고, 은거의 유형은 아니지만 隠居分家라고 하여 家族別居隠居가 동반한 자식이 나중에 결혼하면 隠居屋을 그의 분가로 양도하기도 한다. 그리고 3) 分住隠居라고 하여, 부친은 본가(장남가)로, 모친은 분가(차남가)로 각자 떨어져서 은퇴생활을 영위하는 방식이 있다. 이와 같은 隠居 관행은 일본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행해졌으며, 특히 離島 지역에 집중해서 엄격히 지켜지고 있었고,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대가족제를 유지해 온 동북지방(岩手縣 북부에서 靑森縣에 이르는 대단위 영농지역)은 同居隠居가 일반적인 유형이다.

落合地區의 隠居관행은 「가족별거은거」에 속하며, 별거/별식/별재의 철저한 분가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곧 양친은 장남이 결혼을 하면 1-2년 이내에, 가독/호주권 및 본채를 양도하고, 차남 이하의 가족을 이끌고 별거에 들어간다. 독립된 隠居屋에서 취사도 별도로 했으며, 생계도 별도로 꾸려 나갔다. 이것은 젊은 세대에게 의존하는 「樂隠居」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생활은 자신이 꾸려야하는 「生産隠居」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협소한 경작지와 낮은 생산성에 기인하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隠居財(동산/부동산)는 노부부가 서거하면 본가에 귀속된다. 다른 자녀에게 양도한다든지(隠居分家の 경우) 매각하는 일은 없다. 대개 그 때쯤이면 새로운 隠居者(장남부부)가 형성되어 隠居財를 승계하게 된다. 만일 1세 서거 전에 2세의 隠居者

표 1. 隠居의 유형

	부모세대가	장남과	차남/장녀 이하와	부부간에
1) 同居隠居	-	동거	동거	동거
2) 別居隠居	單獨別居隠居	별거	별거	동거
	家族別居隠居	별거	동거	동거
3) 分住隠居	-	동거	동거	별거

4) 隠居의 사전적 의미: ① 글자의 뜻은 세상을 버리고 숨어사는 것, ② 중세 武家法 이래 전통적으로 이행되어 온 법제로 호주가 자유의지에 의해서 가독(家督)권을 상속인에게 양도하고 은퇴하는 것, ③ 또는 그의 집을 말한다. 1947년 공식적으로 폐지. 新村出 編 「廣辭苑」 제3권 1987년 岩坡書店

가 생기면(3세의 결혼으로 인해서) 1세는 다시 별도의 건물을 짓고 이주하는 것이 원칙이다(이런 경우는 '閑居'라고 함).

4. 본채의 평면구성과 공간사용

1) 평면구성

조사대상 민가 45호 중에서 본채의 평면 조사가 가능한 것은 30동이다. 나머지는 변형이 심하거나 빈집으로 멸실이 상당히 진행되어 평면확인이 곤란한 경우이다. 본채의 규모는 대부분이 정면 5.5칸 이상으로, 5.5-7.5칸 사이에 끌고루 분포한다(5.5칸, 6칸, 6.5칸, 7.5칸 등). 측면은 대부분이 2칸-3칸 정도로서 정면에 비해 측면이 짧은 편이다, 이는 부지가 전후 폭에 제한이 있는 점에 기인한다. 평면형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中ねま3間取り」(이후 「가운데침실 3구획형」으로 호칭한다)로서 아래쪽(소위 下座)에 니와(庭)와 우치(内)가(전후로), 가운데에 나카노마((中の間)와 네마(寢間)가(역시 전후로), 그리고 위쪽(소위 上座)으로 오모테(表)가 넓게 배치된다. 도리방향으로 이 세부분이 병렬하는 형식이다. 다른 하나는 「並列2間取り」(이후 「병렬 2구획형」으로 호칭한다)라고 불리는 것으로 전자에서 가운데 부분을 생략한 형태로 측면의 규모도 2칸 정도로 작은 편이다. 아직 실의 기능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로서 독립된 침실인 네마를 갖추고 있지 않다⁵⁾. 평면이 확인된 30사례 중에서 전자가 14사례, 후자가 13사례로 거의 같은 비율을 보인다.

2) 공간사용

오모테(表,おもて): 내객 접견 및 관혼장제 등의 공식 행사용의 방으로 가장 넓다. 뒤편 벽은 셋으로 분할하여 가운데 佛壇, 좌우에 神棚, 또는 장식용단인 토코(床), 토코노마(床の間)를 설치하고, 벽장인 오시이레(押入)를 설치한다. 이는 자시키(座敷)⁶⁾ 격식을 따른 것이다. 마루바닥에 짚이나 대쪽으로 짠 깔개인 무시로(むしろ)와 동심초 등으로 짠 자리깔개인 고자(ござ)를 깔며 가운데는 불

박이화로인 이로리(いろり)를 설치하고 난방을 취한다. 타타미(たたみ)는 비교적 최근-1920년대 이후에 들어서서 도입되었다. 천장은 특별히 설치하지 않고 서까래 등이 그대로 노출된다(다른방의 마감도 대동소이). 오모테에는 바깥에 엔(縁) 또는 소토엔(外縁)이라고 부르는 쪽마루가 붙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모테의 출입은 이 바깥의 쪽마루와 내부의 니와(庭), 어느 쪽으로부터도 가능한데, 가족은 주로 니와를 통해, 가족이외의 외부인은 바깥의 쪽마루를 통해 출입한다.

나카노마(中の間, なかのま): 오모테가 외부인용의 방임에 비해서 나카노마는 내부 가족용의 방이다. 이로리를 설치하여 난방을 취하며, 식사, 가족단란 용도로 이용되며 취사도 할 수 있다. 이 지방의 나카노마는 앞쪽공간이 화장실이 붙는 것이 특이하다.

네마(寢間, ねま): 주용도가 침실. 나카노마에서 출입하는데 이 출입구 이외에는 모두 벽으로 되어 있으며(3면이 벽) 다른 방과 달리 천장을 설치하여, 상당히 폐쇄적이다. 德島縣내 인근의 민가에서는 오쿠(奥)로 부르기도 한다.

우치(内, うち): 부엌인 다이토코(台所)를 중심으로 한 공간. 인근의 민가에서는 카마야(釜屋)로도 부른다. 이곳에서 취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니와(庭, にわ): 바닥이 흙바닥으로 되어 있는 공간, 곤도마(土間)로서 실외의 작업을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곳이다. 뒤편의 우치와는 칸막이가 없으며 전면에 커다란 출입구가 붙어 있다.

일본의 근세 민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방색을 현저히 띠는 점이다. 德島縣의 민가도 예외가 아니며, 같은 縣내에서도 다시 뚜렷한 지역차를 보인다. 이 마을 민가는 첫째 상기의 두 가지 유형이 절대적 주류를 점한다는 점, 둘째 평면은 전체에서 오모테가 넓은 편이다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후자에 대해서는 관혼장제 의식과 정월 등의 행사를 중시하는 이 지역의 정서상,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것, 그리고 농작업에 필요한 넓은 방이 필요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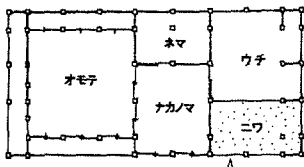


그림 10. 「中ねま3間取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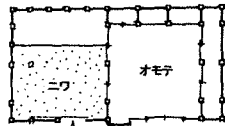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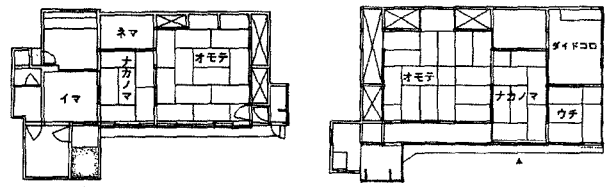


그림 11. 「並列2間取り」



a) 新居つや子家

b) 田本こゆき家

그림 12. 본채의 평면사례(S=1/400)

5) 德島縣내 인근의 민가(산간/평지 모두 포함)에서 일반적으로 채용하였던 평면으로 「4間取り」(요마토리)라고 불리는 것이 하나 더 존재한다. 정면의 칸수를 따서 유형 명칭을 붙인 것으로, 상기의 두 유형 보다는 그만큼 규모가 크다. 그러나 소위 御屋敷, 土居屋敷 등(모두 상류주택의 부류에 해당)로 불리는 민가도-보통 측면이 5칸을 넘는다- 이 마을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규모로 보면 이 마을의 민가는 德島縣 내, 나아가서는 일본 전체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경우에 속한다.

6) 자시키(座敷ざしき): 에도시대 무사주택(상류주택)에서 완성된 전통적인 격식용 공간으로, 타타미를 깔며 안 쪽의 벽면에 토코노마(床の間)와 치가이타나(障い棚)등의 공간장식을 갖추는 것이 특징이다.

5. 隱居屋의 평면구성과 공간사용

1) 평면구성

현물확인과 주민에의 인터뷰 결과, 총 45호의 마을 민가 중에서 隱居屋은, 평면이 확인 가능한 점을 기준으로 15개동(1호 2동의 경우 포함)이 조사되었다(결과는 표 2 참조). 평면확인이 불가능한 것은, 현재 용도가 변경되었거나(창고나 외양간 등), 개축, 또는 멸실과정 중에 놓여 있어서 원형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건립연대는 본체에 비해서 대개 불명확하여 특정하기 어려우나 주민의 말로는 대부분이 근년(명치시대) 이후 지어진 것이라고 한다(표에는 비교적 명확한 본체의 건립연대를 참고로 기재하였다). 15개동의 隱居屋의 평면을 보면, 규모는 본체보다 한 단계 작다. 정면 3.5칸, 4칸 정도의 것이 대부분이다. 측면도 역시 부지의 폭에 제한이 있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짧은 2칸, 2.5칸에 머무르고 있다.

평면형식은, 처음부터 隱居屋으로 지어진 것은 모두 상좌(上手)인 오모테(表)와 하좌(下手)인 니와(庭)/우치(内)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본고에서는 ‘오모테(表)/우치(内) 2분법적 평면구성’으로 부른다). 반면에 곳간채(納屋)를 전용한 것은, 원룸형식이거나 두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어도 오모테/우치의 형식이 아니다. 주민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은거옥을 신축할 때는 ‘오모테/우치의 2분법적 평면구성’을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한다. ‘오모테(表)/우치(内) 2분법적 평면구성’이 이 마을 隱居屋의 기본 구성법(평면의)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평면구성법은, 본체의 평면 형식의 하나인 「並列2間取り」(「병렬2구획형」)의 형식과 본질적으로 맥락을 같이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양자는 형태적으로 유사하고, 또 주택에서 필요로 하는 거주기능을 최저의 선에서 구성한 것이라는 점에서 개념적으로도 완전히 일치한다(필요최소한의 평면구성). 「병렬2구획형」은 「가운데침실 3구획형」에 비하여 간략하지만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갖춘다는 점에서는, 隱居屋이 은거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소로 구성된다는 점과 상통한다. 이와 같은 일치는, 隱居屋의 평면 구성법이 이 지역의 산물이라는 것을 시사하며, 나아가서는 이 지역 민가의 평면 원형(조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한편, 후자의 곳간채(納屋)를 전용한 隱居屋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전자에 비해서 간소화된 형식이다. 곧 도마(土間, 흙바닥의 방)와 이타마(板間, 마루바닥의 방)만으로 되어 있다. 바다 마감만으로는 도마는 니와/우치를, 이타마는 오모테를 각각 대신하는 것으로 볼수도 있으나, 이타마는 마루면이 낮고 격식성을 띄지 않는다⁸⁾. <표 2>

상에서는 이 평면형을 ‘투룸형’으로 표기하였다(‘원룸형’으로 표기된 것은 보다 더 간략화된 형식에 해당한다.). 이 사례에는 박공면이 전면으로 오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는데(隱居屋은 본체와 마찬가지로 처마면이 전면으로 오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부지가 등고선방향으로 여유가 없거나, 곳간채의 배치형식을 띄는 것으로 해석된다.

2) 공간사용

본래 隱居屋으로 지어진 점 그리고 은거를 목적으로 현재 사용 중인 점 등,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는 전체 중에서(실질적으로는 평면 확인이 가능한 15 사례 중에서) 단지 2례에 불과하다. 그 만큼 隱居屋(隱居) 관행이 쇠퇴한 것이다. 두 사례는 長岡가와 南가의 경우인데, 南가는 최근 노인 홈에 입소하여, 채록하지 못하였고 長岡重久 家の 경우만 채록하였다.

長岡重久 家の 長岡씨(女)는 현재 77세로 隱居屋에서 혼자 기거하고 있다. 본체에는 장남부부가 살고 있고, 이외에 분가한 자식이 2인, 손자 6인, 증손자 3인을 두고 있다. 은거개시는 장남결혼과 동시에 시작하였고(1978년), 그 후 별식, 별재(가산의 분할은 본체 7: 隱居屋 3의 비율)의 「가족별거은거」를 지속해 왔다. 隱居屋은 오모테, 우치의 2칸으로, 8첩(疊)의 오모테는 3첩정도 안쪽을 막고 네마를 두는 개조를 하였다(출입구는 커튼식). 7년전 건강이 악화된 것이 계기가 되어 개조를 하였는데 네마에는 전동식 침대와 침대 바로 곁에 전화를 설치하는 조

표 2. 隱居屋의 평면형식

명칭	규모	평면형식	원래 용도	본체 연대	본체 규모
長岡重久 가	3.5칸	오모테/우치 2분법	隱居屋	江戸中期	6칸*
新居つや子 가	3.5칸	오모테/우치 2분법	隱居屋	江戸中期	6칸*
南 敏治 가	3칸	투룸형	양잠실	1780년	5.5*
中尾 巖 가	4.5칸	오모테/우치 2분법	隱居屋	江戸後期	5.5*
新部正敏 가	3칸	투룸형	納屋	江戸後期	5칸
曾我吉信 가	3.5칸	오모테/우치 2분법	隱居屋	江戸後期	6칸*
井上嘉夫 가	3.5칸	투룸형	納屋	1928년	6.5칸
上森敏雄 가 #1	4.5칸	오모테약화3구획형	隱居屋	불명	불명
上森敏雄 가 #2	3.5칸	오모테생략3구획형	納屋	상동	상동
坪根時夫 가	2.5칸	원룸형	納屋	철거	-
山西義徳 가	2.5칸	원룸형	納屋	멸실	-
上野恒久 가	3.5칸	오모테/우치 2분법	隱居屋	江戸中期	7.5칸
射場かよる 가	4칸	1층투룸형, 2층원룸형	納屋	江戸後期	5.5칸
上中盛信 가 #1	4칸	오모테/우치 2분법	隱居屋	불명	불명
野地福久 가	3.5칸	오모테/우치 2분법	隱居屋	明治時代	4칸

주) 규모는 정면칸수로 표시함. 이 지방에서는 1칸 5자로 한 경우가 많다(*표시). 건립연대는 대부분 명치시대 이후. 江戸時期는 서력으로 1603-1868년 사이의 기간. 上中盛信 가#1은 현재 ‘上中下次가’로 부르고 있음.

7) 오모테의 안쪽 벽에는 미서기 문으로 된 오시이레(押入, 벽장)와 佛壇, 神棚 등이 설치된다 이는 본체의 오모테와 같은 성격의 공간성을 지니지만 꼭 셋으로 분할하는 격식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8) 隱居屋을 별도로 세우지 않고, 본체 내에 은거용 방을 별도로 설치한 경우도 있다(西秀子家 1례). 니와/우치와 오모테 사이를 벽으로 막고, 기능상 오모테를 본체로 사용하고 우치를 隱居屋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도 식사, 작업 등을 각각 별도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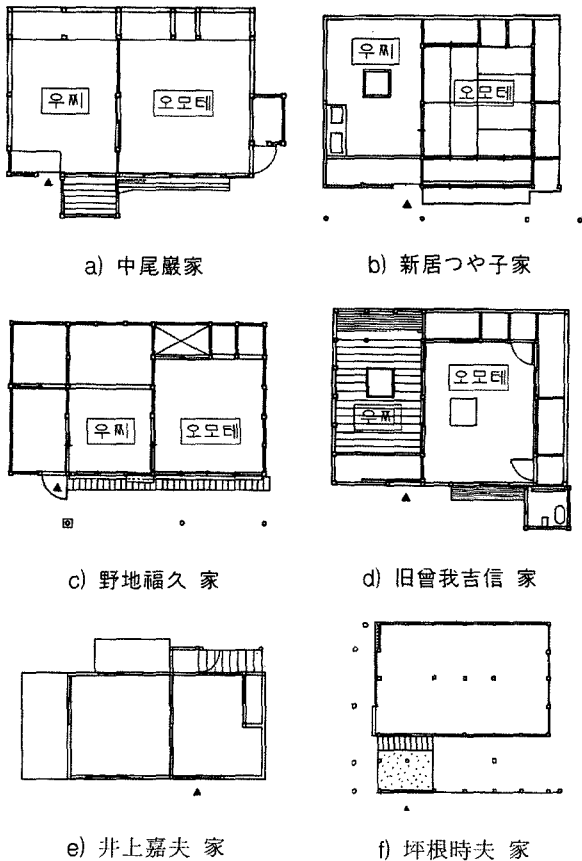


그림 13. 隱居屋의 평면사례(S=1/300)

처도 추가하였다. 우치는 일상의 생활을 하는 공간으로 가운데에 놓인 코타츠(炬燵, 난방용 좌탁)에서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고 텔레비전을 보는 등, 잠자리에 드는 시간 이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서 보낸다. 부엌은 바닥을 깔았고(동시에 높임), 실내는 단차가 거의 없이 평활하다. 다만 옥내외의 출입은 쪽마루를 통해서 행해지고 있어서 단차가 노구에 부담이 되고 있다. 욕실은 별도로 없고 본체의 욕실을 함께 이용한다.

일본의 隱居屋은 일반적으로 본체에 비해서 규모가 작고, 격식성에 있어서도 떨어진다. 구체적으로는 방의 수가 3-4실로서, 자시키(座敷), 네마(寢間), 다이토코(台所), 도마(土間) 등을 갖추고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이 마을의 隱居屋은 규모를 더 작게 하고 있다. 隱居세대의 가족 수가 특별히 적은 것도 아니다. 전술한 '오모테/우치의 2분법적 평면구성'에서 본 바와 같이 네마를 갖추지 않는 등, 최소한의 구성에 그치고 있다. 경제적인 여력에서, 그리고 급경사지에 조성된 좁은 대지라는 여건에서, 본체 이외에는 모두 규모를 최소화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6. 隱居제도와 隱居屋의 변용

이밖에 본래 隱居屋로 지어진 경우는 아니더라도, 또 현재 노부부가 隱居屋이 아닌 본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도, 이 마을의 隱居제도의 운용과 隱居屋의 변용에

관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가 있다.

1) 上森敏雄 家의 경우는, 上森씨 的 夫부(양쪽 모두 68세)가 생활하고 있는 본체 좌측의 隱居屋#2는 원래 곳간채(納屋, 物置)였던 것을 거주용으로 전용한 것이다. 장남이 결혼한 후 2년간 본체에서 함께 살았고 그 후 분가를 하였다. 현재 본체에는 장남이 혼자 살고 있다. 본체 우측의 隱居屋#1은 上森씨 的 妻가 살던 곳으로 1993년 부친, 1995년 모친의 서거 후 빈 상태로 되어 현재는 창고 겸, 손자의 취미용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곧 隱居屋#1은 閑居에 해당). 장남인 上森씨는 결혼과 함께 양친이 은거별거를 시작하였고, 세월이 흘러 자신의 장남이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본인 부부가 은거별거에 들어간 것으로, 이 때 隱居屋을 새로 짓지 않고 곳간채를 隱居屋으로 전용한 것이다. 隱居屋 #1, #2 모두 독립적으로 가게를 운영하였다고 한다. 현재 장남은 본체에서 혼자 살고 있고, 식사는 隱居屋#2에서 양친과 함께하고 있다.

2) 坪根時夫 家, 坪根씨(65세, 남)의 경우는(본인은 차남), 본체의 좌우에 隱居屋이 2채가 있었는데(모두 곳간채에서 전용) 좌측의 隱居屋#1에는 조모가, 우측의 隱居屋#2에는 양친이, 그리고 본체에는 본인의 형인 장남부부가 살고 있었다. 이 3세대는 각각 별식, 별재의 가게를 꾸려나갔다고 한다. 조모의 서거 이후에 隱居屋#1는 다시 창고(다용도)가 되었고, 隱居屋#2는 양친 서거 이후 너무 낙후되어 철거하였다. 그 부지에는 북해도에서 살고 있던 차남(본인)이 퇴직 후에 귀향을 해서 현재 살림집을 신축하여 살고 있다. 그 간 장남은 직장관계로 다른 지방으로 이사 가게 되었고, 귀향할 예정이 뚜렷하지 않고, 건물이 많이 낙후되어서 본체는 철거하였다고 한다.

3) 新部正敏 家의 新部씨(78세, 남)의 경우는, 장남부부가 나고야에서 살고 있으며, 현재 본체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다. 일찍이 그의 양친이 거주했던 隱居屋은 곳간채의 전면을 증축했던 것으로 현재는 비어 있으며 가끔 손님용 방으로 쓰이고 있다.

이와 같이 隱居제도는 반드시 隱居屋을 전제로 운영된 것은 아니다. 타 목적의 건물을 전용하여 운영된 경우도 실제로는 적지 않으며, 거꾸로 隱居屋이 타 용도로 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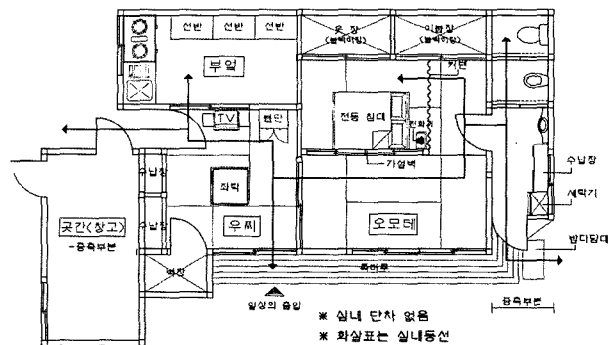


그림 14. 長岡重久 家 隱居屋의 공간사용 (S=1/150)

되는 경우도 있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隱居제도, 隱居屋이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음은 사실이지만, 그 탄력적인 운영은 반드시 쇠퇴의 결과물이라고만 할 수 없다.

III. 결 론

이상, 일본 四國 德島縣 祖谷지방 東祖谷山村 落合地區/集落(마을)를 대상으로, 隱居제도와 隱居屋을 중심으로 한 조사한 내용과 고찰결과를, 특징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隱居제도의 특징

隱居제도라 함은 장남이 결혼하면, 가장은 본체의 옆에 별채(隱居屋(인코야)을 세워 분가해 나가는 은퇴관행을 말한다. 落合地區에서는 장남의 결혼을 계기로, 가장은 가족(家督)권을 장남에게 양도하고 별도로 건립된 隱居屋으로 분가(隱居)해 나가는 방식을 채택해 왔다. 이는, 가장이 차남/장녀 이하의 자식들을 동반해서 은거육으로 분가해나가므로, 「別居隱居」에 해당하며 그 중에서도 「家族別居隱居」에 해당한다. 그리고 落合集落의 은거는 같은 부지내의 분가이지만 별식/별재의 철저한 분가형태를 취한다. 즉 落合集落은 그만큼 문화권에서 외진 곳이었고 그만큼 생활환경이 척박했던 곳이었다. 별식/별재의 철저한 분가형태는 험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생을 영위해 나가야하는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일한다는 철저한 자립정신(「隱居정신」으로 부를만한)의 발로인 것으로 생각된다.

2) 隱居屋의 특징

隱居屋은 은거를 위해 분가해 나가는 가옥을 지칭한다. 일반적인 隱居屋은 본체에 비해서 규모가 작고, 격식성도 떨어진다. 그런데 그중에서 落合集落의 隱居屋은 규모가 아주 작은편에 속한다. 隱居세대의 가족수가 다른 지방에 비해서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마(寢間)를 별도로 갖추지 않는 등 필요 최소한의 구성을 한다. 급경사지에 조성된 좁은 대지라는 여건상 본체 이외의 건물은 규모를 최소화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최소한의 구성은 ‘오모테(表)/우치(內) 2분법적 평면구성’으로 대변된다. 다른 지방의 隱居屋에서는 이와 같은 평면구성법을 일반적으로 볼 수 없다. 이 마을 隱居屋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

이와 같은 평면구성법은 이 지역 본체의 평면 형식의 하나인 「並列2間取り」(「병렬2구획형」)의 형식과 본질적으로 맥락을 같이한다. 양자는 형태적으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필요최소한의 거주기능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개념적으로도 완전히 일치한다. 이와 같은 일치는, 隱居屋의 평면 구성법이 이 지역의 산물이라는 것, 그리고 이 지역 민가의 평면 원형(조형)이 바로 이방법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3) 은퇴관행의 비교

落合集落의 隱居관행은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행해진 ‘고광물림’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외의 지역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은퇴관행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살림권 이양 및 세대교체의 시기가 장남의 결혼시기가 아니라, 훨씬 세월이 흐른 뒤라는 점, 隱居屋과 같은 은퇴생활을 위한 가옥을 따로 짓지도 않고, 별식/별재와 같은 철저한 방식을 취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살림권 이양에 관해서는 그 동안 민속학을 중심으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주거/건축학 분야에서의 연구공, 그러한 관행이 이루어지는 하드웨어(집)에 관한 연구는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앞으로의 연구과제라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1. 德島縣教育委員會 (1976), 「四國地方の民家」(日本の民家 調査報告書集成14) 東洋書林
2. 德島縣教育委員會 (1976), 「阿波の民家」
3. 東祖谷山村 (1978), 「東祖谷山村誌」
4. 後藤治 (1994), 「四國の住まい」(INAX ALBUM 23)INAX출판
5. 東祖谷山村教育委員會 (2003), 「東祖谷落合 傳統的建造物群保存對策調査報告書」
6. 龜井伸雄, 「秘境の建築」(「日本の美術」第417號)
7. 竹田旦 (1964), 「民俗慣行としての隱居の研究」未來社
8. 竹田旦 (1970), 「家’をめぐる民俗研究」弘文堂
9. 新村出 編 (1987) 「廣辭苑」 제3판 岩波書店
10. 金貞均 (2003), 高齢者の繼續居住を支えるネットワーク居住と集落環境のあり方-德島縣東祖谷地方の山間集落における調査により 都市住宅學 第43號, pp.60-65.
11. 根上聰史外(1990), 隱居慣行とよま空間について-對馬における空間様式に関する研究その2,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梗概集(中國), pp.19-20
12. 在塚礼子(1992), 隱居と隣居と閑居と, 建築雜誌 Vol.107 No1336, p67.
13. 船越正啓(1992), 隱居慣行からみた親子二世帶住宅に関する研究-長崎縣壹岐島郷ノ浦町渡良西觸地區のケーススタディーその2 日本建築學會中國/九州支部研究報告3計劃系 第9號-3, pp.121-124.
14. 山口將輝(1993), 隱居慣行からみた親子二世帶住宅に関する研究-長崎縣壹岐片山地區, 諸吉地區, 渡良西觸地區の比較検討その5 日本建築學會 中國/九州支部研究報告3 計劃系 第34號-3, pp.145-148.
15. 上和田茂外(1995), 隱居慣行からみた親子二世帶住宅に関する研究その7-愛媛縣大三島上浦町盛地區の場合,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梗概集(北海島), pp.307-308.
16. 三浦要一・増井正哉(2005), 山間集落における農家住宅の住空間の變容-德島縣東祖谷山村の事例, 日本家政學會誌 Vol56 No5 pp.317-328.

(接受: 2006. 3. 22)